

고려의 기술과 문화

11월



월

일

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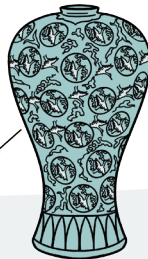
다음 고려의 문화재에 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고려청자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고려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



영숙



왕실과 귀족이
주로 사용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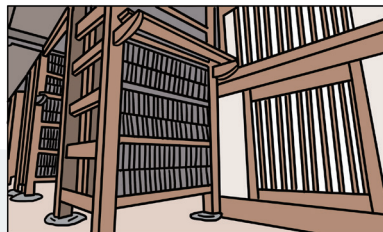
기욱

팔만대장경

불에 타 없어져서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



석헌



부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려고
만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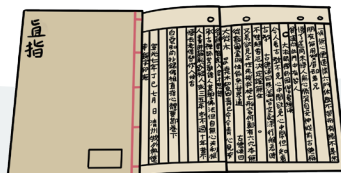
수정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야.



수연

『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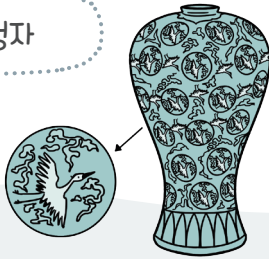
금속 활자로
찍었기 때문에 판이
썩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을 거야.



병진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살펴볼까요?

고려청자



중국
청자 기술

상감 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매운 후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이에요.

고려의
상감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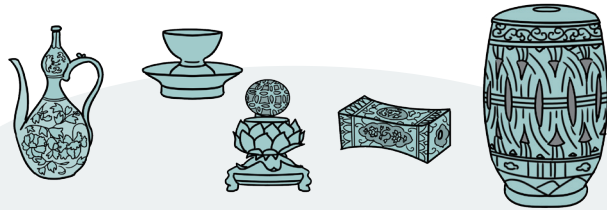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청자 기술에
고려의 상감 기법을 적용해 **상감 청자**를 만들었어요.

좋은 가마를 만들어
불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광택과 단단함을 더해 줄
유약도 만들 줄
알아야 해요.



청자를 만들려면 특별한 흙을
골라야 했고 뛰어난 기술도 필요했어요.



청자는 다양한 용도로 썼지만 만들기 어렵고
귀해서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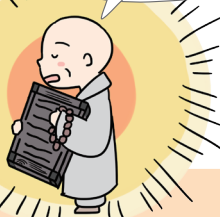
고려청자를 보면 당시의 뛰어난 도예 기술과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어라?



수준 높은 불교 지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대장경! 그 힘을 보아라!



*대장경 :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 놓은 것

다 탔습니다.
이 일을 어쩔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요. 이번에는 더
큰 정성을 기울여
봅시다.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초조대장경이 몽골에 의해 불에 타 버리자,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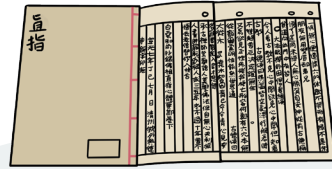
금속 활자



금속 전문가, 종이 전문가,
먹 전문가 모십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금속을 다루는 기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먹과 종이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나는 불교의 가르침 중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지!



『**직지심체요절**』은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것이예요.

금속으로 만들면
나무처럼 썩거나 뒤틀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난번 책 찍을 때 썼던
글자를 또 쓸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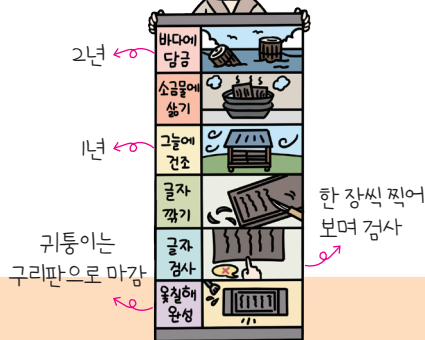
틀린 글자는
바로 교체!



한 글자 틀리면 한 쪽
다 바꿔야 했는데...

금속 활자는 판을 새로 짤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 좋았어요.
또 목판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쉽게 마모되지 않으면서 보관도 쉬웠어요.

참 쉽죠?



8만여 장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판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어요.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습도 조절을 위
해 과학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기
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팔만대장경판으로 고려의 뛰어난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을 알 수 있어요.

- 중국의 청자 기술에 고려의 상감 기법을 적용한 상감 청자를 만들었다.
-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보여 준다.

- 고려 사람들은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대장경’을 만들었다.
-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뛰어난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을 보여 준다.
- 팔만대장경판과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금속을 썼으므로 목판에 비해 만드는 시간이 짧고 쉽게 마모되지 않으며 보관이 쉬웠고,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에 좋았다.
- 『직지심체요절』은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 (1) 상감 기법은 표면에 새긴 무늬에 다른 흙을 매워 유약을 발라 굽는 기법이다. ()
- (2) 고려청자는 다양한 쓰임새로 만들어져 주로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불교 지식이 필요하였다.
㉡ 부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만들었다.
㉢ 고려의 뛰어난 금속 활자 기술을 보여 준다.

금속 활자 인쇄술이 목판 인쇄술에 비해 좋은 점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보관이 쉽다.



판을 새로 짤 수 있어
(㉠))을 만들기에 좋다.

고려의 기술과 문화

11월



월

일

해 보기

다음 고려의 문화재에 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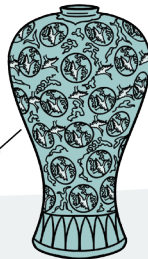
★ 바른 답 확인하기 13쪽
(영숙, 석현, 병진)

고려청자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고려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



영숙



왕실과 귀족이
주로 사용했어.



기욱

팔만대장경

불에 타 없어져서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



석현



부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려고
만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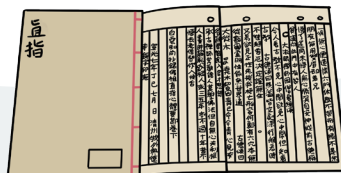
수정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야.



수연

『직지심체요절』



금속 활자로
찍었기 때문에 판이
썩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을 거야.



병진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살펴볼까요?

고려청자



중국
청자 기술

상감 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매운 후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이에요.

고려의
상감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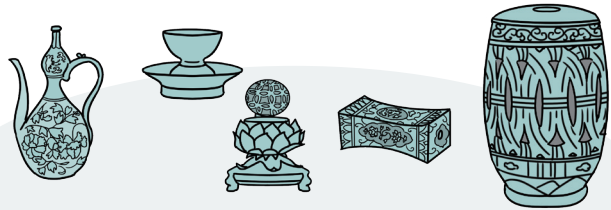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청자 기술에
고려의 상감 기법을 적용해 **상감 청자**를 만들었어요.

좋은 가마를 만들어
불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광택과 단단함을 더해 줄
유약도 만들 줄
알아야 해요.



청자를 만들려면 특별한 흙을
골라야 했고 뛰어난 기술도 필요했어요.



청자는 다양한 용도로 썼지만 만들기 어렵고
귀해서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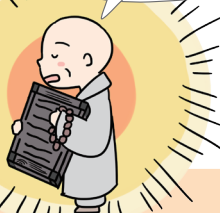
고려청자를 보면 당시의 뛰어난 도예 기술과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어라?



수준 높은 불교 지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대장경! 그 힘을 보아라!



*대장경 :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 놓은 것

다 탔습니다.
이 일을 어쩔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요. 이번에는 더
큰 정성을 기울여
봅시다.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초조대장경이 몽골에 의해 불에 타 버리자,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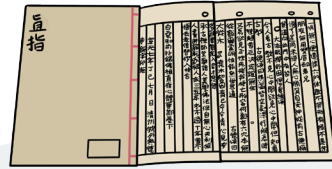
금속 활자



금속 전문가, 종이 전문가,
먹 전문가 모십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금속을 다루는 기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먹과 종이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나는 불교의 가르침 중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지!



『**직지심체요절**』은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것이예요.

금속으로 만들면
나무처럼 썩거나 뒤틀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난번 책 찍을 때 썼던
글자를 또 쓸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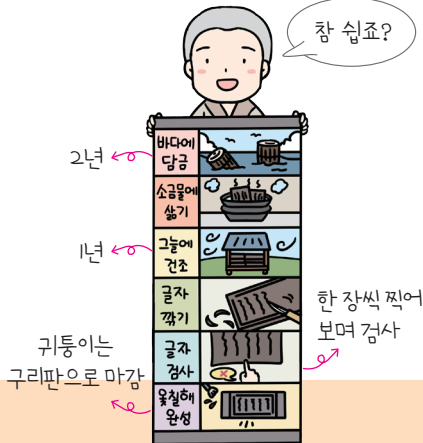
틀린 글자는
바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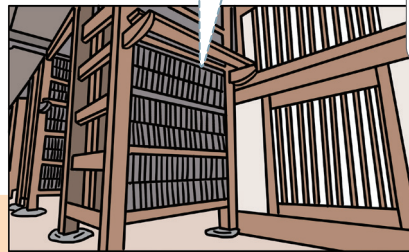
한 글자 틀리면 한 쪽
다 바꿔야 했는데...

금속 활자는 판을 새로 짤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 좋았어요.
또 목판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쉽게 마모되지 않으면서 보관도 쉬웠어요.

참 쉽죠?



8만여 장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판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어요.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습도 조절을 위
해 과학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기
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팔만대장경판으로 고려의 뛰어난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을 알 수 있어요.



» 고려청자

- 중국의 청자 기술에 고려의 상감 기법을 적용한 상감 청자를 만들었다.
- 왕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귀족들의 화려한 문화를 보여 준다.

» 팔만대장경

- 고려 사람들은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대장경’을 만들었다.
-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뛰어난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을 보여 준다.
- 팔만대장경판과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금속 활자

정리!



- 금속을 썼으므로 목판에 비해 만드는 시간이 짧고 쉽게 마모되지 않으며 보관이 쉬웠고,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에 좋았다.
- 『직지심체요절』은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 (1) 상감 기법은 표면에 새긴 무늬에 다른 흙을 매워 유약을 발라 굽는 기법이다. (○)
- (2) 고려청자는 다양한 쓰임새로 만들어져 주로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

2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보기

- ㉠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불교 지식이 필요하였다.
- ㉡ 부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만들었다.
- ㉢ 고려의 뛰어난 금속 활자 기술을 보여 준다.

3

금속 활자 인쇄술이 목판 인쇄술에 비해 좋은 점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보관이 쉽다.



판을 새로 짤 수 있어
(㉡)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기에 좋다.